

2022년 7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8. 15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7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.0% 증가

-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- 7월 무역수지는 약 1,013억 달러 흑자로 1987년 이래 사상 최대 월간 흑자 기록

○ (수입) 7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.3% 증가

-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, 특히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, 천연가스의 1~7월 수입액이 각각 52.0%, 47.7% 대폭 증가
- 수입증가율은 시장 예상치(3.7%)를 밑돌았으며, 코로나 제로 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및 다운스트림 소비재 수입량은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

1 수출입 동향

- 7월 수출액은 18.0% 증가한 3,329억 6천만 달러(약 435조 원), 수입액은 2.3% 증가한 2,317억 달러(약 303조 원), 무역수지는 1,012억 6천만 달러(약 132조 원) 흑자를 기록
 - 7월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으며, 1~7월 누계 기준 무역수지는 4,823억 달러(약 630조 원) 흑자로 전년 대비 61.6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



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	'22.6월(당월)	'22.상반기(누계)	'22.7월(당월)	'22.1~7월(누계)
수 출	33,634 (29.9)	3,313 (17.9)	17,323 (14.2)	3,329.6 (18.0)	20,626.8 (14.6)
수 입	26,865 (30.0)	2,333 (1.0)	1,3468 (5.7)	2,317.0 (2.3)	15,803.8 (5.3)
수 지	6,769	980	3,855	1,012.6	4,823.0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7월 수출입 총액은 5,646억 6천만 달러(약 737조 원)로 11.0% 증가했으며, 1월부터 7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.4%, 14.6%, 5.3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, 신발 품목의 1~7월 누적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3.0% 증가하는 등 코로나 방역 통제 완화 이후 중간재뿐 아니라 해외시장의 다운스트림 소비재 수요도 회복세를 보임
 -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증가세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락다운이후 조업 재개(复工复产)가 빠르게 회복되었음을 반영
 - (수입)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며, 특히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, 천연가스의 1~7월 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각각 52.0%, 47.7% 증가
 - 수입증가율은 시장 예상치(3.7%)를 하회하였으며, 코로나 제로정책 영향으로 자동차 및 다운스트림 소비재 수입량은 감소하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
- 하반기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 및 미국·유럽 제조업 경기 약세 영향으로 중국 수출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다만 3분기 말부터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더라도 중국의 빠른 공급망 회복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 수출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
 - 하반기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글로벌 공급 제한으로 오히려 중국의 수출은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음
 -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는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이 여전히 불안정하나 중국의 공급망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유리한 수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난 7개월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 구조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었으며, 특히 7월 무역흑자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됨 - 7개월 동안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국 대외무역기업 수는 전년 동기대비 5.8% 증가했으며, 그중 민간기업 수출입액은 전년 대비 15.3% 증가하여 대외무역 총액의 50% 비중 차지 - 금년 1월에 발표된 RCEP는 회원국 간 무역 및 투자 협력을 촉진하여 새로운 경제 발전 모멘텀을 제공했으며, 중국과 RCEP 회원국 간의 7월 수출입은 전년 대비 18.8% 증가
	 중국무역 진흥연구원 (中国贸促会 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수출입은 하방 압력을 견디고 있으며, 5월 이후부터 대외무역은 회복세를 보여 왔고 7월의 전년 대비 수출입성장률은 회복 곡선에서 벗어나 호조세 유지 -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전통시장(미국, EU, 일본, 한국 등) 및 신흥시장(ASEAN, 인도, 브라질 등)에 대한 대외무역 모두 양호한 실적을 유지했으며 이는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중국의 대외무역 역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 - 대외무역 실적이 양호한 주요 요인은 정책 지원 및 RCEP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기업의 수출입 환경이 개선된 덕분이라고 평가 - 하반기에는 대외무역 정책 효력이 더 크게 작용하여 지속적인 수출입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 증가율은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지만 수입 수량만 놓고 보면 중국 내수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 - 원자재 수입량 감소는 중국 부동산 수요 약화와 관련이 있으며, 자동차 및 기타 다운스트림 소비재 수입량 감소는 여전히 내수 회복이 느리다는 것을 나타냄 - 하반기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및 미국, 유럽 제조업 경기 약세로 중국 수출 하방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지속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의 제한으로 오히려 중국 수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7월 수출증가율은 18.0%로 시장 예상치(15.0%)를 상회하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, 수입증가율은 2.3%에 그치며 시장 예상치(3.7%)를 하회함 - 중국 8개 주요 항만의 7월 무역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14.5% 증가했으며 6월의 컨테이너 처리량 증가율(8.4%)보다 더욱 높게 나타남 - 한편,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과 미-중 간 외교 갈등이 향후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 - 하반기 수출은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4분기에는 대외수요위축이 수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7월 무역수지는 약 1,013억 달러 흑자로 1987년 이래 최고치 기록 - 양호한 7월 수출실적은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해에 중국 경제성장에 큰 도움을 주며, 견고한 수출성장은 위안화 환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음 - 중국 제품의 수출단가 상승 추이와 미국 CPI 인플레이션 추이가 대체로 일치하며, 7월 수출액 증가의 상당 부분은 수출단가 상승효과에서 기인함 - 수입 실적은 예상보다 낮았으며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영향으로 중국 내수 위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음. 최근 베이징 지방정부는 전기차 구매 취득세 인하 및 주택시장 수요촉진 등 소비활성화 조치를 내놓았으나 여전히 내수약세 지속 - 하반기엔 5~6월 코로나 방역 봉쇄로 인해 지연되었던 수출 선적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출증가세는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
	 월스트리트 저널 (WSJ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7월 수출증가율은 놀라울 정도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외수요가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전반적인 경제 약세를 상쇄함 -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증가율은 중국 공장과 항만의 근로자들이 지연된 주문을 처리하는 등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빠르게 완화되었음을 반영 - 7월 중국의 대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22% 급증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8. 9)

- (국가별 동향) 미국(누계 수출증감률 15.0%) 및 EU(19.7%), ASEAN(18.9%), 중남미(21.2%), 아프리카(14.8%)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액이 증가
 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7.8%), 일본(6.4%)으로의 수출액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10.2%)은 감소하였고,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3.9%) 수출액은 증가
 - 최근 신흥 교역국(인도, 인도네시아, 브라질)의 수출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섬유 원료, 비금속 제품 등 원자재 수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
 - 수입의 경우, ASEAN(누계 수입증감률 6.0%), 중남미(7.9%)를 포함하여 대만(5.2%), 미국(2.5%)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증가하였으나 EU(△7.5%), 일본(△7.5%), 호주(△11.1%)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중국의 대한국 1~7월 누계 수입은 2.7% 증가하였으나 7월만 놓고 보면 0.9% 감소했으며,对美国 7월 수입 또한 4.5% 감소

< 7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7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7월 누계증감률
1	미국	550	15.0	*ASEAN	338	6.0
2	*EU	534	19.7	*EU	240	△7.5
3	*ASEAN	532	18.9	*중남미	202	7.9
4	*중남미	257	21.2	대만	197	5.2
5	홍콩	237	△10.2	한국	168	2.7
6	일본	159	6.4	일본	157	△7.5
7	*아프리카	154	14.8	호주	140	△11.1
8	한국	143	17.8	미국	135	2.5
9	베트남	126	3.9	아프리카	117	20.9
10	인도	112	37.0	브라질	103	1.4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9%), 2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4.4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3.1%)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4.3%, 12.9%, 11.9% 증가

-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0.8%)는 수량이 1~7월 누계 기준으로 11.8% 감소했으나 금액은 5.0% 증가
- 2위 원유(비중 9.4%)는 수량이 4.0% 감소했으나 금액은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52.0% 증가. 3위 철광석 및 정광은 수량이 3.4% 감소, 금액은 30.2% 감소하였는데 이는 철광석 원자재 가격이 2분기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

< 7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7월 누계증감률	금액	1~7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220	4.3	4.9
2	의류 및 부자재	-	-	196	12.9	4.4
3	방직실 및 직물	-	-	136	11.9	3.1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36억 개	△7.7	127	13.5	2.9
5	강재	667만 톤	△6.9	107	32.2	2.4
6	플라스틱제품	-	-	98	16.3	2.2
7	휴대폰	6,432만 대	△11.5	90	2.1	2.0
8	자동차부품	-	-	79	10.3	1.8
9	가전제품	30,958만 대	△7.3	76	△7.4	1.7
10	신발	89,458만 켤레	13.6	60	33.0	1.3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7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7월 누계증감률	금액	1~7월 누계증감률	비중
1	반도체 및 집적회로	450억 개	△11.8	345	5.0	10.8
2	원유	3,733만 톤	△4.0	302	52.0	9.4
3	철광석 및 정광	9,124만 톤	△3.4	115	△30.2	3.6
4	식량(곡류)	1,230만 톤	△7.1	74	16.0	2.3
5	대두	788만 톤	△5.9	58	18.0	1.8
6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50	△3.1	1.6
7	천연가스	870만 톤	△9.6	48	47.7	1.5
8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35만 톤	△12.7	46	△1.8	1.4
9	동광석 및 정광	190만 톤	7.4	45	11.2	1.4
10	미단조 동 및 동재	463,694톤	5.8	42	14.7	1.3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○ 7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 수치 50.2보다 감소한 49.0로 하락했으며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4.2%, 2.7% 상승함

- 지난달 PMI는 4개월 만에 기준선(50)을 상회하며 반등하였지만 7월에 다시 하락하여 경기 위축 양상을 보였고 주요 원인에는 에너지 고소비 업종의 침체, 시장 수요 감소 등이 있음
- 7월 PPI(4.2%)는 지난 일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산업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영향이 반영됨
- 7월 CPI(2.7%)는 4개월 연속 2%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채소·과일 등 식품 및 교통수단 연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19	2020	2021	'22.상반기	6월	7월	
경제성장률(%)	6.0	2.2	8.1	2.5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8.0	△3.9	12.5	△0.7	3.1	2.7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5.1	2.9	4.9	6.1	6.1	5.7	
산업생산 증감률(%)	5.7	2.8	9.6	3.4	3.9	3.8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(%)	50.2	51.9	50.3	50.2	50.2	49.0	
소비자 물가지수 CPI(%)	2.9	2.5	0.9	1.7	2.5	2.7	
생산자 물가지수 PPI(%)	△0.3	△1.8	8.1	7.8	6.1	4.2	
실업률(기말, %)	5.2	5.2	5.1	5.7	5.5	5.4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381 (2.4)	1,444 (4.5)	1,735 (20.2)	1,124 (21.8)	246 (26.8)	-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1,079	32,165	32,502	30,173	30,173	31,041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85	6.8974	6.4512	6.4810	6.6991	-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62 (△16)	1,326 (△2.7)	1,629 (22.9)	814 (6.9)	130 (△0.8)	132 (△2.5)
	수 입	1,072 (0.7)	1,089 (1.5)	1,386 (27.3)	772 (19.7)	142 (24.1)	138 (19.9)
	수 지	290	237	243	42	△12	△6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주: 7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임